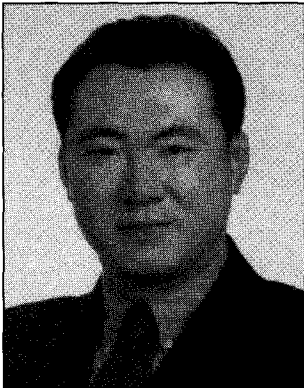


# 도전과 혁신 바탕 고객 만족 실천

## 국내 최초 100% 분해 가능 점착라벨 개발



◀ 김준형 남미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꾸준한 수출신장을 하고 있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어 오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빨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일 것이다.

1972년 9월 남미산업(주)으로 설립된 남미인더스트리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100% 분해 가능한 점착라벨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남미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NA-PE 디럭스는 다양한 PE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용기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하며 기

존의 코로나 처리방식(PE) 라벨의 인쇄적성 문제점을 해결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PE용기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점착라벨이란 보통 라벨 혹은 라벨 스티커라고 일컬으며 제품의 상표 및 광고는 물론 인쇄, 화학, 의약품, 가전제품, 자동차, 문구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점착라벨이 부착되는 피착물의 소재도 천연소재에서 합성품까지 물과 같은 액체나, 공기와 같은 가스 이외의 모든 재질에 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성능 또한 내후성, 내광성, 내열성, 내한성, 내수성 등 매우 다양하다.

남미인더스트리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를 창조한다"는 신경영이념과 "고객만족" "미래도전" "입체사고"의 남미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점착라벨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다.

"예전에는 제품명만을 나타내는 상표명 라벨만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재질, 용기, 모양에 따라 각각의 기능에 맞으면서 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끈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



▲ 남미인더스트리 중앙연구소

다”라는 김준형 사장은 여느 중소기업 대표들 보다 젊다. 젊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경력이 짧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어찌보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더욱더 패기 넘치는 열정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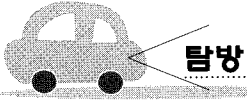
“회사가 성장하려면 아이디어, 열정,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을 실행해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능력’이 아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때 회사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김준형 사장에게서 힘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남미인더스트리는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초현대식 기계설비를 도입하여 최첨단 자동시스템과 일괄공정시스템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극대화 및 안정성 확보 등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종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1991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여 품질관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하여 남미인더스트리는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인쇄적성이 뛰어나고 내수성 및 내약품성에 강한 NY합성 라벨지의 우수성을 인



## 탐방

정받고 있으며, UL승인도 획득하여 그 품질의 우수성은 해외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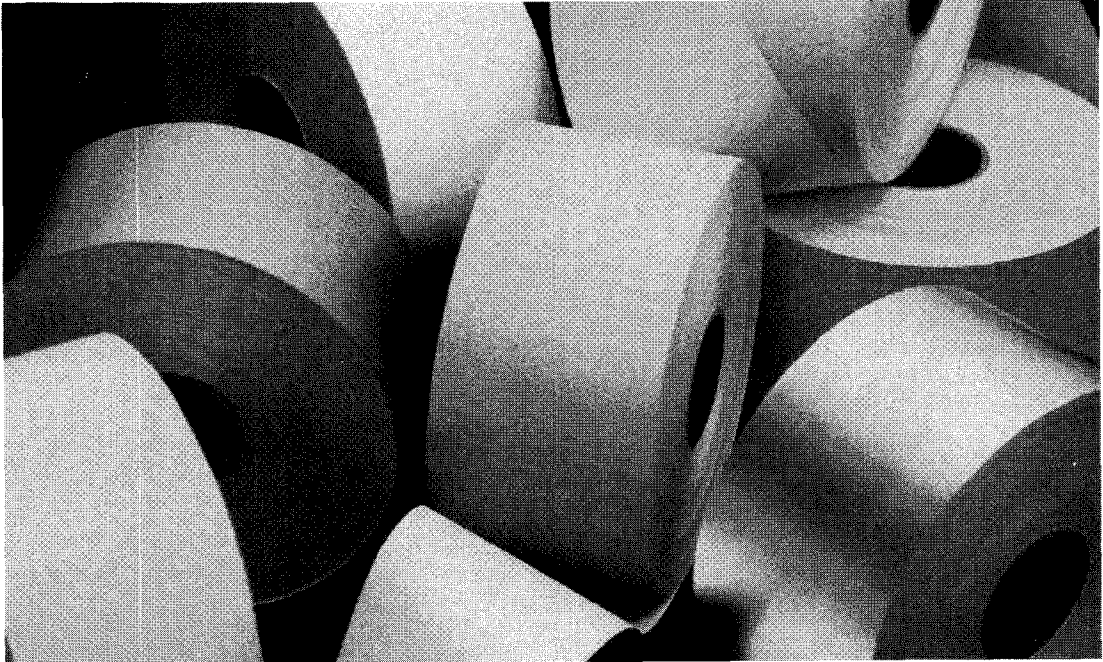
그밖에도 바코드라벨, 라미네이팅용 바코드라벨, 초고온에서 사용되는 PI필름라벨, 선박 용접용 점착지, 감열라벨지, 무공해 방습지, 화이버글라스 테이프, 리펠리콘등을 제품화하였으며 품질 개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뒤에서 꾸준히 땀흘려 준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는 김준형 사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원아파트를 제공하고 있고, 미혼 남자직원을 위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사내 취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내 체육문화시설과 휴식 공간을 확충해 직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고, “사원 설문조사를 하여 나온 결과는 수렴, 회사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갖고 이 남미인더스트리가 우리 모두의 땀의 결정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화합” 즉 더불어 같이 나아가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김준형 사장은 17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랑심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아동요양원, 노숙자 수용시설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전 직원이



▲ 남미인더스트리 생산가공제품



▲ 남미인더스트리 생산제품

한 달에 한번 요양원이나 수용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임에도 그 참여율이 높다고 남미인들은 자신 있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형 사장은 “기업은 솔직해야 합니다. 경쟁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의 솔직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투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떠넘기는 말뿐이 아닌 각자 나부터 당장 실천하도록 합시다”라며 피력했다.

국내 최초로 100%분해 가능한 점착라벨의 길을 연 국내 최대의 점착라벨 생산업체인 남미인더스트리의 전 직원들 가슴에는 업계를 선도한다

는 자부심이 배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당함에 패기 넘치는 열정으로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앞으로도 지속 되길 바란다.

또한 고객중심 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실천하며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이 중심되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

**기업 및 제품소개  
편집실  
835-9041**